

## 존 듀이 미적 경험의 이해를 위한 젤트너의 제안\*

### P. M. Zeltner's Suggestions for Understanding of John Dewey's Aesthetic Experience

김기수\*\*

Gi-Su Kim

**초록** 젤트너는 듀이의 미적 경험에 대한 이해를 크게 증진 시킨 존 듀이 미학자이다. 그는 듀이의 미학을 자연주의적 형이상학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며, 듀이에게서 유기체 인간과 음악은 ‘자연의(of)’, ‘자연의 안(in)에서’, ‘자연에 의해(by)’ 그 존재가 가능하다고 귀결한다. 이 관점에서 음악은 자연의 오묘한 것들, 즉 자연의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내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미적 경험은 듀이 미학의 핵심 개념으로서 일상과 예술과의 연속성 회복의 매개체이다. 듀이는 일상의 미적 경험을 ‘하나의 경험’으로 소개한다. 젤트너는 이 하나의 경험은 ‘수렴적 완성으로서의’ 미적 경험이며, 일상의 모든 경험은 미적 상황인 미적인 구조화와 성질을 갖추게 되면 하나의 경험이 됨과 동시에 미적 경험이 된다고 주장한다. 젤트너는 듀이의 미적 경험의 이해를 위해서 하나의 경험을 일차적 미적 경험의 단계와 예술 경험을 의도되고 다듬어진 미적 경험의 단계로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이 두 단계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연속성을 띤다.

**주제어:** 젤트너, 존 듀이 미학, 미적 경험, 음악교육철학, 음악교육

**Abstract** P. M. Zeltner was a John Dewey aesthetician who greatly enhanced his understanding of Dewey's aesthetic experience. He argues that Dewey's aesthetics represent naturalistic metaphysics, and in Dewey, organic humans and music result in the existence of ‘of nature’, ‘in nature’, and ‘by nature’. From this point of view, music is defined as containing the mysterious things of nature, that is, the metaphysical things of nature. Aesthetic experience is a key concept of Dewey aesthetics and a medium for restoring continuity between daily life and art. Dewey introduces everyday aesthetic experiences as ‘an experience’. Zeltner argues that this an experience is an aesthetic experience “as a convergent completion,” and that all experiences in everyday life become an aesthetic experience as well as an experience when they have aesthetic structures and properties. Zeltner suggests dividing ‘an experience’ into a primary phase of aesthetic experience and an intentionally cultivated phase of aesthetic experience for understanding Dewey's aesthetic experience. However, these two phases have a continuity that can never be separated.

**Key words:** P. M. Zeltner, John Dewey aesthetics, aesthetic experience, music education philosophy, music education

\* This paper summarizes what was presented at the 2023 APSMER (Asia-Pacific Music Education Research Symposium)

\*\* Corresponding author, E-mail: gisu1027@cue.ac.kr

Professor,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3, Jinyangho-ro 369beon-gil, Jinju-si, Gyeongsangnam-do, Korea

Received: 30 August 2023, Reviewed (Revised): 1 October (6 October) 2023, Accepted: 6 October 2023

© 2023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 I. 들어가는 말

존 듀이(J. Dewey, 1859-1952)의 미학은 학계에서 어렵기로 정평이 나있다. 이런 듀이 미학의 올곧은 이해를 위해 가장 선행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듀이의 철학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이다. 듀이의 미학이 그의 경험주의 철학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의 철학적 발전과정의 맥락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듀이의 철학을 접하는 많은 사람은 여전히 듀이 미학의 접근은 물론이고 듀이가 제안하는 미적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이 말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듀이의 철학적 발전과정과 그의 철학적 범주, 그리고 경험의 원리 등에 대한 선행적 이해가 없으면 듀이의 경험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이유는 듀이의 철학적 과제가 그의 철학 발전과정에서 계속 변하고 있다는 데 있다. 듀이가 살았던 급변하는 시대 상황을 고려해 보면, 어쩌면 이런 철학적 발전 양상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듀이의 철학적 관심과 과제는 현재 상황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철학적 사유와 해명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소위 프래그머티즘(Pragmatism)이라고 일컬어진다. 곧 철학에서 확실하고도 명료함을 찾는 방식을 ‘무엇(what)’에서의 존재론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how)’에서라는 의미론에서 찾는다. 그래서 듀이의 철학적 사유에서는 절대적인 진리란 없다. 이 말은, 소위 철학에서 말하는 진리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절대 불변의 이데아(Idea)의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언제든지 변화 가능한 하나의 ‘정당화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듀이의 이러한 철학적 관점과 사유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듀이의 미학 이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물론, 듀이의 철학적 관점과 사유는 그의 철학적 발전과정에서 맞닥뜨리는 헤겔(G. W. F. Hegel)의 철학과 다윈(C. R. Darwin)의 진화론, 제임스(William James)의 심리학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부연하자면, 듀이의 사후 그의 저작물 간행에서 엿볼 수 있듯이, 듀이의 철학의 발전과정은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지는데(Zeltner, 1975, pp. 1-2; Kim, 2008, pp. 14-15), 즉 초기 철학은 헤겔의 철학으로 형이상학적 사유를, 중기 철학은 다윈의 진화론과 제임스의 심리학으로 생물학적 자연주의 사유를, 후기 철학은 예술을 토대로 하여 형이상학적 자연주의적 사유로 발전한다. 그런 만큼, 분명 듀이의 미학과 미적 경험의 올곧은 이해를 위해서는 발전과정의 맥락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 연구자가 듀이의 40여 편이 넘는 책과 700여 편의 방대한 논문을 수집하며 올곧은 해석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일이다. 설사, 수행한다고 해도 의미의 해석에 있어서 오해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듀이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학의 발전과정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루는

철학적 과제와 해명을 두루 섭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다. 더욱이 듀이 철학의 이해는 단순히 표면적 지식적 차원으로 이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치, 그 일은 좋은 포도주를 빚는 과정과 같다. 말하자면, 좋은 포도주는 잘 익는 포도에서 곧바로 추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가공 기술과 오랜 숙성의 시간을 거쳐서 얻을 수 있다는 이치(理致)이다.

사실, 본 연구자는 그동안 듀이의 미학을 소개하며 논의한 여러 저명한 학자들의 책과 글을 접해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듀이의 미학과 미적 경험의 올곧은 이해는 여전히 큰 어려움으로 와닿는다. 설령 올곧게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하기가 무엇보다도 어렵다. 사실, 많은 듀이의 연구자가 똑같은 듀이의 미학을 접하고서도 그 이해의 정도와 내용의 전달에 있어서 제각기 다르다. 그래서 이 사람 글을 읽으면 이런 뜻인 것 같고, 저 사람 글을 읽으면 저런 뜻인 것 같은, 소위 독자에게 혼란과 혼동을 일으킨다. 그런 면에서 듀이의 미학을 20년 가까이 연구해 오고 있는 본 연구자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런 중에도 듀이의 미학과 ‘미적 경험’을 비교적 올곧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바로 젤트너(Philip. M. Zeltner)의 『존 듀이 미학』(*John Dewey's Aesthetic Philosophy*)에서의 제안이었다. 특히, 젤트너는 듀이의 미학, 즉 『경험으로서의 예술』(*Art as Experience*, 1934)에서 다루어지는 ‘하나의 경험’이 왜 미적 경험인지, 그리고 그것이 예술의 미적 경험과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를 도식을 통해서 명료하고도 간결하게 제안한다. 또한, 젤트너는 그의 『존 듀이 미학』에서 듀이 미학의 핵심 과제인 일상과 예술이 어떤 관계성을 가지는지, 일상과 예술의 미적 경험의 연속성이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를 밝혀 보여준다. 이로써 젤트너는 듀이의 미학 집필의 목적이 미적 경험으로서 일상과 예술의 연속성 회복이었음을 더욱 견고히 한다. 곧 일상과 예술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고, 일상의 미적 경험과 예술의 미적 경험 역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연속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상의 경험과 예술 경험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제안하고 있는 젤트너의 미학적 견해를 통하여 듀이의 미학 접근과 미적 경험의 올곧은 이해를 증진하려고 한다. 이는 음악교육에서 듀이 미학의 이해와 연구 증진의 일조뿐 아니라 음악교육의 장(場)에서 미적 경험의 사유와 실천을 확장하며, 나아가 음악교육철학의 학문에서 미적 경험의 철학적 기초를 더욱 탄탄히 할 것이다.

## II. 듀이의 미학

듀이의 미학은 1934년에 출간한 『경험으로서의 예술』로 대변된다. 이 책은 14장으로

구성되고 그 내용이 ‘경험으로서의 미학의 기초’와 ‘예술 본질적 문제’, ‘예술의 기여’ 등을 다루고 있어서 그 분량이 상당할 뿐 아니라 이해 또한 만만치가 않다.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미적 경험의 수준 혹은 특징은 제3장 “하나의 경험”에서 논의되고, 그것의 이해를 위한 기초를 제1장과 제2장에서 논의한다. 우선, 듀이의 미학 내용을 살펴보면, 『경험으로서의 예술』의 구성은 <Table 1>과 같이 제시된다.

<Table 1> Composition of *Art as Experience*<sup>1)</sup>

Table of contents	Main contents
1. The live creature 2. The live creature and “Ethereal things” 3. Having an experience	Fundamental problem in art
4. The act of expression 5. The expressive object 6. Substance and form 7. The natural history of form 8. The organization of energies 9. The common substance of the arts 10. The varied substance of the arts	Essential problem of art
11. The human contribution 12. The challenge to philosophy 13. Criticism and perception 14. Art and civilization	Instrumental function of art

<Table 1>에서 알 수 있듯이, 듀이의 미학적 과제는 ‘예술의 근원적인 문제’, ‘예술의 본질적 문제’, 그리고 ‘예술의 도구적 기능’의 3부 형식으로 구성된다. 14장에 걸친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듀이의 미학은 예술 자체만을 위한 미학적 담론이 아니라 그의 철학적 과제에 대한 해명으로 이루어지는 철학적 담론이다. 그래서 듀이의 미학을 옹골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험으로서의 예술』만의 접근으로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이 듀이 미학의 접근과 이해를 더욱 어렵게 하는 이유이다. 즉 듀이의 미학을 이해하려면 듀이 철학 전반을 아울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1부에 해당하는 3개의 장은 듀이의 후기에 해당하는 철학적 과제와 해명을 충분히 알아야만 제대로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젤트너는 그의 『존 듀이 미학』 집필을 위해, 듀이의 『경험으로서의 예술』뿐 아니라, 『인간 본성과 행동』(*Human Nature and Conduct*, 1922), 『경험과 자연』, 『논리학』(*Logic: The Theory of Inquiry*, 1938), 『인간의 문제』(*Problems of Men*, 1946), 『확실성 탐구』(*The Quest for Certainty*, 1929),

1) <Table 1>과 이와 관련된 논의는 본인의 연구물(2009) 및 발표(2019)에서 소개한 것을 수정 및 재구성한 것임. 참고로 3부 형식의 구분과 주요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자가 덧붙인 것임(2023, p. 74).

『철학과 문명』(*Philosophy and Civilization*, 1931), 『가치관 이론』(*The Theory of Valuation*, 1939), 『아는 것과 알려진 것』(*Knowing and the Known*, 1949)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음이 이 책의 참고문헌을 통해 알 수 있다.

젤트너는 듀이의 미적 경험과 직접 관련된 논의를 『경험으로서의 예술』의 제3장 “하나의 경험(Having an experience)”에 두고 있다. 이 장의 핵심 요지는 일상에서 갖는 ‘하나의 경험’은 미적 경험으로 명명되며 예술 경험과 연속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적 경험으로서의 하나의 경험은 예술과 관련된 경험만을 일컫지는 않는다. 곧 일상의 경험이 미적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듀이는 하나의 경험의 몇 가지 예들을 제시한다. 가령, 수학을 푸는 과정, 돌이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 굴러가는 것 등이다.

또한, 듀이는 제3장에서 일상은 생명체의 생명과 삶의 터전으로써 미적 성질로 가득한 미적 세계의 미적 경험의 장(場)이라고 강조한다. 즉 일상은 생명체의 삶과 경험뿐만 아니라 예술 발생과 향유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듀이는 일상에서 갖는 하나의 경험은 예술 경험과 연속성을 가진다는 초석을 마련하는데, 즉 “직접적인 즐거움을 통해 소유할 수 있는 의미들로 충전된 활동의 양태인 예술은 자연의 완벽한 절정이다”(Dewey, 1981, p. 269)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자연은 당연히 일상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아울러, 듀이는 자연의 완벽한 절정인 예술의 미적 경험을 강조하며, “예술품은 물리적이고 잠재적인 것인데 반하여, 예술작품은 활동적이고 경험적인 것이다”(Dewey, 1958, p. 162)<sup>2)</sup>라고 강하게 주장하며, 예술을 어떤 ‘대상물(product)’로서가 아니라 ‘경험(experience)’으로서 새롭게 정의한다. 다시 말하면, 듀이는 미적 경험과 분리된 예술작품을 전주어 하나의 물리적 대상에 불과한 ‘예술품(art product)’에 지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예술품과 만남에서 일어나는 미적 경험을 ‘예술작품(work of art)’으로 명명하며 이를 진정한 예술로 새롭게 정의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듀이의 미학은 상당히 해체주의적인 성격을 띠는 면이 있다. 물론, 여기서 해체주의는 결코 기존의 것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철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재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익히 듀이의 『철학의 재구성』(*Reconstruction in Philosophy*, 1948)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듀이의 미학은 그의 철학발전의 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연이 내포하고 있는 형이상학적인 세계에 대해 예술로서의 해명의 차원에서 다루어진다. 그런 만큼, 듀이의 미학은 그의 철학에서 별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의 전체적인 철학발전의 과정에서 예술을 매체로 하여 다루어지고 있는 예술철학이 되고 있다. 여기서 듀이는 예술은 자연의 완벽한 절정이고, 예술 경험은 최고의 미적 경험이라고 제안한다. 이 미적 경험은 당연히 자연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일상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2) John Dewey(1958). *Art as Experience*. New York: G. P. Putman's Sons(First published 1934)의 인용은 이후부터 AE로 표기함.

### Ⅲ. 젤트너의 존 듀이 미적 경험의 이해

#### 1. 젤트너의 존 듀이 미학 접근

##### 1) 존 듀이 미학 이해의 입문서로서의 접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듀이가 1934년에 출간한 『경험으로서의 예술』은 듀이의 미학적 담론일 뿐 아니라 그의 자연주의적 형이상학에 관한 철학적 담론인 까닭에, 듀이를 연구하는 많은 철학자와 미학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어들였다. 하지만, 그 이해에 있어서 만만치가 않음은 분명해 보인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을 두고서도 저마다 다른 견해와 해석을 낳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듀이의 미학을 접하는 이들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해왔을 뿐 아니라 오해와 오류를 낳기도 하였다. 이는 곧 듀이의 미학 접근과 이해는 단순한 표면적 지식으로만 다가가기 어렵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런 만큼, 듀이 미학의 올바른 접근을 위해서는 그의 미학적 범주와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젤트너는 듀이가 『경험으로서의 예술』을 출간한 지 40여 년이 지나서 듀이 미학의 이해를 위한 입문서 성격의 『존 듀이 미학』을 출간한다. 물론, 40여 년 동안 존 듀이 미학을 연구한 학자들은 많았다. 하지만, 대개는 간헐적인 연구이거나 『경험으로서의 예술』 안에서의 미시적인 시각의 연구가 많았다. 혹은 듀이의 어떤 견해를 인용하는 차원에서 연구자의 견해를 피력하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젤트너는 올바른 듀이의 미학 이해를 위해 기존의 철학과 미학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하지만, 자신만의 접근 방식으로 듀이 미학의 이해를 위한 입문서 성격의 책을 출간한다. 말하자면, 젤트너는 듀이의 『경험으로서의 예술』을 중심에 놓되 그것의 배후로 작용하는 철학적 기초를 제시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배합되는지를 밝히는, 즉 듀이 미학 전체를 포괄하며 아우르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젤트너의 미학적 논의는 <Table 2>와 같이 제시되는데, 제1장은 미학 담론의 서론에 해당하고, 제2장은 듀이 미학의 이해를 위한 철학적 기초에 해당하는 ‘미적 경험’에 관한 것이다.

<Table 2>를 <Table 1>과 비교해 보면, 젤트너의 미학적 접근 방식은 더욱 분명해진다. 즉 듀이의 미학에 근거하지만, 보다 예술 자체의 충실한 이해를 위해 ‘듀이 미학의 기초’, ‘예술의 문제’, ‘음악 매체’, 그리고 ‘미적 비평’에 대해서 논의한다. 좀 더 부연하자면, 젤트너는 듀이의 예술의 도구적 기능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듀이 미학의 핵심 개념인 ‘미적’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며 경험과 예술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는 듀이 미학의 이해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미적 경험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로써 젤트너

가 그의 미학 출간을 통해 더욱 확실히 하고 싶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듀이의 미적 경험에 대한 확실한 이해라고 가늠할 수 있다. 나아가 젤트너는 듀이의 미적 경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는 결코 올곧은 듀이의 미학 접근과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보았을 것으로 가늠된다.

<Table 2> Composition and highlights of P. M. Zeltner's *John Dewey's Aesthetic Philosophy*

Table of contents	Main contents
1. Experience and nature	- the development of Dewey's philosophy - <i>Experience and Nature</i> and <i>Art as Experience</i> - the roots and categories of aesthetics
2. Experience and aesthetic experience	- aesthetic experience - organisms and environments - an experience
3. Expression and emotion	- expression and impulse - the act of expression and the medium - emotion
4. Substance and form: Their interpenetration	- substance and form - form and material - condition of form and rhythm
5. Rhythm-symmetry and the substances of the arts	- art product and work of art - the rhythm of nature and the rhythm of art - the definition of rhythm and the characteristics of aesthetic experience
6. Medium and the meaning of music	- medium and music - formalism and related music - dialectical music
7. Aesthetic criticism	- the evaluation of works of art - judicial criticism and impression criticism - reduction and confusion

젤트너는 듀이 미학 이해의 기초가 듀이의 『경험과 자연』의 이해라고 보면서, 제1장에서 “경험과 자연”을 다룬다. 그리고 비교적 듀이가 미술했던 음악을 대상으로 음악 매체의 특징과 의미를 듀이의 미학적 관점에서 잘 논의하고 있다. 또한, 젤트너는 미적 비평 또한 매체와 음악의 의미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논의하며, 형식주의와 관련주의 접근, 비평의 재단 비평과 인상 비평을 비교하며 어느 것에도 얽매지 않는 방식, 곧 이러한 이분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미적 경험’으로서라는 이원일위(dyad)의 방식으로 논의한다. 여기서 이원일위란 비록 두 방식의 가치가 존재하지만, 그것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라 미적 경험이라는 나무 몸통 위에 뻗은 두 가지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그런 만큼, 젤트너에게서 듀이 미학의 이해는 ‘미적 경험’의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이 되고 있다.

## 2) 존 듀이 철학의 완성체로서의 접근

젤트너는 듀이의 미학적 견해가 단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여 년에 걸쳐서 완성된 것이라고 소개하며, 번스타인(Richard J. Bernstein)의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듀이의 철학발전 과정을 3단계를 나눈다.<sup>3)</sup> 미학은 후기 철학에 해당하는 것으로 듀이의 자연주의적 형이상학을 대변하는 결정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젤트너는 듀이의 미학을 이전 저작물에서 확립된 철학적 입장에 접붙여진 ‘경솔한 부가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다(Zeltner, 1975, p. 1).

그는 더욱 평범한 관념으로 돌아와 그것들을 재검토하고 자신의 위치에 대한 사전 입장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그의 철학은 여러 국면에서 내적 상호관계가 더욱 명백해지고, 일관성 있고, 포괄적인 관점을 보인다. 『경험과 자연』을 포함하여 듀이의 가장 중요한 작품들인 『확실성 탐구』(*The Quest for Certainty*, 1929), 『경험으로서의 예술』, 『논리학: 탐구이론』(*Logic: The Theory of Inquiry*, 1938) 등이 이 시기에 출간된다(Bernstein, p. x, pp. xi-x x; Zeltner, 1975, p. 1)

그러면서 젤트너는 듀이가 『경험으로서의 예술』 출간 이전에 이미 미학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암시하였었다고 가늠하였다.

듀이는 1925년 이전에 미학적인 문제를 다루는 많은 논문을 썼다. 예를 들어, 듀이의 초기 출간에서 “시와 철학”, 『철학평론』에서 보장켓(B. Bosanquet)의 논평, 『교육백과사전』에서의 “교육의 미학 요소” 등이 있다. 그러나 듀이는 이후에 설명해야 할 광범위한 미학에 대해 그때까지 완전히 의식하지 못했다고 추측된다. 그가 의식적으로 미학을 집필하기 위해 노력한 것 같지는 않다. 비록 듀이가 문학에는 이미 박식했는지라도, 그림에 대해서는 앨버트 반스(Albert Barnes)와의 교류를 통해 알게 되었다. 듀이는 반스 재단(The Barnes Foundation)을 위한 몇 편의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그의 일반적인 철학적 관심사와 순수 예술에 대한 지식을 결합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경험으로서의 예술』을 계속 집필할 수 있었다(Zeltner, 1975, p. 2).

이처럼, 젤트너는 듀이의 미학이 그의 전체 철학에서 최고의 업적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듀이의 미학이 이전의 철학과 다른 많은 뜻을 담거나 새로운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철학적 주장에 대해 재검토한 활기찬 내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3) 존 듀이 철학자인 번스타인은 *John Dewey(1966)*에서 듀이의 철학 발전을 세 단계로 나누는데, 초기를 듀이의 수많은 관념을 형성하였던 시기로, 중기를 듀이의 도구적 논리학과 가치론 및 교육적, 사회적 철학을 형성하였던 시기로, 후기는 초기의 철학적 관념을 재검토하고 비판적으로 새롭게 분석하는 시기로 구분한다.



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젤트너는 ‘산은 땅에 덧붙여진 것이 아니다’라는 비유를 들며, 미학은 단순히 듀이의 철학에 부가적으로 덧붙여진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그는 “듀이의 철학은 미학이요, 듀이가 논리학, 형이상학, 인식론, 심리학의 영역에서 주도면밀하게 논의했던 모든 것은 미적인 것과 예술을 이해하는 데서 그 정점에 이른다”(Zeltner, 1975, p. 3)고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젤트너가 듀이의 미학을 비범하게 간주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밝힌다(Zeltner, 1975, p. 3; Kim, 2008, pp. 20-29). 첫째는 듀이의 미학은 미적 경험에 대한 분석이 우리의 일상 경험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직접 향유되고 소유된 경험에 관한 미적 해석을 도출하고 있다. 듀이의 미학은 일상이 미적인, 또는 잠재적으로 미적 경험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임을 단순히 지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발생하는 환경과 의미를 분석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듀이 미학은 물론이고, 미학의 핵심 개념인 미적 경험의 이해를 위한 첫걸음이다. 둘째는 <Table 1>에서 알 수 있듯이, 듀이의 미학은 미학 탐구의 주요 과제인 표현, 정서, 리듬, 형식, 본체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 이는 미적 경험에 관한 더욱 광범위한 논의에 포함된 범주와 맞물려 있다. 그 범주는 이미 『경험과 자연』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래서 젤트너는 많은 비평가가 왜 듀이의 미학을 불평했는지를 언급하며, 그 이유가 『경험과 자연』의 이해 부족의 탓이라고 강조한다. 즉 젤트너는 듀이의 미학에서 다루어지는 광범위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듀이가 이야기하는 형이상학, 인식론, 논리학 등의 영역에서 의미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한 내용을 잘 담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경험과 자연』이다. 젤트너는 제1장에서 “경험과 자연”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듀이의 미학 및 미적 경험의 이해를 위한 기초적인 포문을 열고 있다.

## 2. 젤트너의 듀이 미학 경험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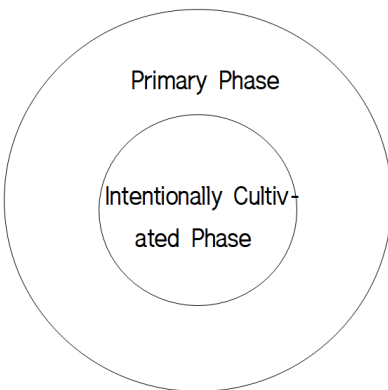
### 1) 미적 경험의 일차적 단계와 다듬어진 단계의 구분

젤트너의 듀이 미적 경험의 논의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은 미적 경험의 단계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연의 경험과 예술의 경험이 어떻게 연결고리를 짓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듀이의 미학서 제3장 ‘하나의 경험’과 직접 연관되며, 그것이 어떻게 예술의 경험과 연속성을 갖는지를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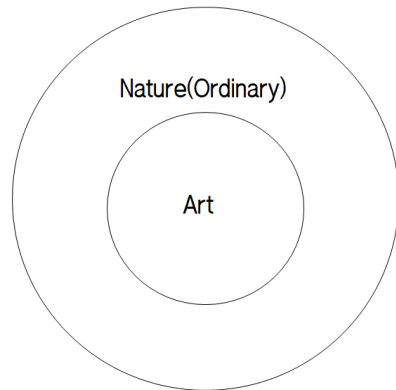
사실, 현행 음악교육에서는 일상 경험에 해당하는 듀이의 ‘하나의 경험’이 미적 경험인지 아닌지, 그것이 예술의 미적 경험과 같은지 다른지, 만약 같다면 어떻게 같은지, 만약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하는 논쟁이 되어왔었다.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듀이의 ‘하나의 경험’에 대한 충분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오해와 오류로 보인다. 그래서 많은 음악교육자는 듀이가 말하는 일상에서의 ‘하나의 경험’이 미적 경험이라면 도대체 음악의 미적 경험과 뭐가 다른가를 논쟁한다. 부연하자면, 만약 일상의 미적 경험인 하나의 경험이 음악 경험과 특별히 다르지 않다면, 굳이 음악교육에서 음악의 미적 경험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음악에서가 아니라 빼어난 자연의 아름다운 경관에서 얻는 미적 경험이 더 훌륭하고 더 충분하지 않은가 하는 식이다. 이러한 혼란의 분위기는 젤트너가 듀이 미학을 출간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굳이 젤트너는 듀이의 미학을 출간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젤트너는 듀이의 ‘하나의 경험’의 오해와 오류의 해명 실마리로 [Figure 1]을 제시한다. 곧 젤트너는 일상에서 갖는 하나의 경험을 미적 경험의 “일차적인 단계(Primary Phase)”라고 하고, 예술 경험을 미적 경험의 “의도적으로 다듬어진 단계(Intentionally Cultivated Phase)” (Zeltner, 1975, p. 4)라고 명명하며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미적 경험은 그 수준에 따라 일차적 단계와 의도적으로 다듬어진 단계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곧 듀이의 미적 경험은 일상에서의 미적 경험과 예술에서의 미적 경험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젤트너의 주장은 듀이의 철학에서 자연(일상)과 예술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본 연구자는 [Figure 2]의 자연(일상)과 예술의 연속성을 함께 제시하여 이해도를 높이려 한다.



[Figure 1] Aesthetic experience's phase



[Figure 2] Artistic phase

물론, 이들 도식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상과 예술과의 연속성 회복이 듀이의 미학 집필의 주요 동기라는 것을 단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보여준다. 그런 만큼, [Figure 1]과 [Figure 2]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듀이의 미적 경험뿐 아니라 하나의 경험의 오해와 오류

는 크게 줄 것이 분명하다. 동시에 이 도식들은 듀이의 미학 제3장 ‘하나의 경험’에서 강조되는, 곧 일상의 미적 경험은 예술의 미적 경험과 연속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듀이에게서 일상과 예술의 미적 경험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 된다. 예술 경험을 할 때는 항상 일상의 미적 경험이 일차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아니 일상의 일차적 단계에서 발전하여 예술의 미적 경험이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듀이에게서 예술은 ‘자연의 미적 상태(수준)의 절정’에 해당하고, 예술은 이 상태를 가장 잘 담지하는 매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의도적으로 다듬어진 단계’와 ‘예술’은 듀이가 의도적으로 참여시킨 것이 아니라, “삶의 정상적인(normal) 과정과 미적 경험의 연속성을 회복(AE, 10; Zeltner, 1975, p. 4)”하려는 그의 철학적 노력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일상과 예술 혹은 일상 경험과 예술 경험의 연속성은 듀이의 경험주의에서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논증(論證)이라는 것이다. 이는 ‘일차적 단계로서의 미적 경험’은 『경험과 자연』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자연 일반론의 성과로서 미학 이론을 확고히 하고 있는데(Zeltner, 1975, p. 15), 듀이의 미적 경험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과 자연』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여실히 드러낸다. 젤트너는 이런 순차적인(과정적인)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듀이의 미적 경험의 이해에 있어서 대부분 연구자는 불평을 쏟아낸다고 밝히고 있다(Zeltner, 1975, p. 4). 그러면서 젤트너는 듀이가 미적 경험의 단계를 구분하고 있는 다음 글을 언급한다.

왜냐하면, 모든 정상적인 완전한 경험은 나의 미학 이론의 근간이자 참으로 생명선이기 때문에, 충만한 과정을 운영하는 모든 경험은 그 자체로 수렴적 완성의 단계에서 미적이다. 그리고 나의 이론 또한 예술과 그것의 미적 경험은 일차적 단계를 의도적으로 다듬어서 개발된 것이다. 이 일차적 단계에서는 내 이론의 주요 필수 불가결한 의도에 내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비난하기 위한 증거 제시를 요구한다. 내가 확인할 수 있는 한, 두 가지 다른 목적의 표현에서, 미적 경험의 일차적 형식과 의도적으로 개발된 형식 사이의 차이를 명백히 확증할 수 있었던 만큼, 어떤 증거도 유효하지 않다(Dewey, 1950, pp. 56-58; Zeltner, 1975, p. 5).

여기서 “의도적으로 다듬어서 개발된 것”은 예술을 지칭한다. 물론, 듀이의 미학은 항상 ‘경험으로서’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미적 경험을 유발하는 표현대상과 표현활동도 함께 일컫는다. 젤트너는 듀이에게서 “더욱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경험이 적절하게 구조를 갖추게 될 때, 모든 정상적인 경험의 기능은 미적 경험으로 행사하기에 손색이 없다”(Zeltner, 1975, p. 5)라고 지적한다. 당연히 이때의 정상적인 경험은 하나의 경험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적어도 경험의 큰 척도는 미적 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상적인 경험, 또는 평범한 경험, 또는 일상의 경험, 그리고 이후의 분석은, (삶의 과정과의 연속성에서) 예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듀이의 미적 이론을 예술에 묶고 그들을 포함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Zeltner, 1975, p. 5).

그런 만큼, 예술의 미적 경험은 일상의 경험에서 발생하는 의식적이고도 신중한 경험에 지나지 않는다. 일상은 곧 자연이다. 듀이에게서 모든 경험은 자연에서 일어난다. 젤트너는 경험과 자연의 연속성을 재확립한 것이 바로 듀이의 『경험과 자연』이라고 주장한다(Zeltner, 1975, p. 7).

경험은 자연 안(in)에 있을 뿐 아니라 자연의(of) 것이다. 경험되는 것은 경험이 아니라 자연이다. 즉 돌, 식물, 동물, 질병, 건강, 온도, 전기 등이다. 어떤 면에서 상호작용하는 것들은 경험인 동시에 경험된 것이다. 그것들은 다른 자연 대상인 인간 유기체와 연결되면서, 사물들이 경험되는 방식이기도 하다(Dewey, 1925, p. 4; Zeltner, 1975, p. 7).

결국, 경험은 자연으로부터 소외된 것이 아니라 자연의 무수한 형식들 가운데 하나의 형식 안에서 자연으로 존재한다. 경험은 인간 유기체를 제외한 나머지 자연과의 상호작용 안에 인간 유기체를 끌어들이는 자연의 국면이다. 그러므로 경험은 자연에 부가된 것이 아니라 자연 안에서, 자연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 되고 있다.

## 2) 미적 경험으로서의 ‘하나의 경험’

젤트너는 그의 미학 제2장 “경험과 미적 경험”에서 하나의 경험의 이해를 위해서는 인간 유기체의 삶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데, 일차적으로 유기체의 삶은 환경 안에서 진행된다고 밝힌다. 즉 듀이에게서 “경험은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자연의 통로이다. 그러므로 삶은 단순히 환경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한다”(AE, p. 13)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유기체와 환경의 관계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로써 연속성과 역동성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곧 인간 유기체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이전의 상태와 같은 균형을 획득하려 할 뿐 아니라, 활동의 저항과 장애를 만나면 그의 행동을 수정하거나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인간 유기체는 상황의 의미를 통합하고 그것으로 인해 확장하며 성장하게 된다.

유기체가 주변 사물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삶은 어떤 행복한 기회를 통하여 또는 노력으로 그것과 함께 회복하는 단계들로 구성된다. 성장하는 삶에서의 회복은 성공적으

로 뚫고 나아가 저항과 불균형의 상태에 의해서 오히려 풍요해지기 때문에 결코 이전 상태로의 단순한 복귀가 아니다. 유기체와 환경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면 생명체는 죽는다. 또한, 일시적 소외로 생명체의 활동이 더 강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살아만 있을 뿐이다. 생명체는 살아가는 환경의 에너지와 유기체의 에너지 사이의 일시적인 부조화가 더욱 확장된 균형으로 전이될 때 성장한다(AE, p. 4; Zeltner, 1975, p. 16).

이처럼, 듀이에게서 인간 유기체의 경험은 저항과 장애를 극복하고 삶에서 균형이라는 통일성을 재확립하는 것을 특성으로 한다. 이 경험은 미적인 것과 유사한 미적 발아의 통합적 완성의 경험이다. 삶의 연속적인 과정들은 불안정과 안정이라는 특성을 드러내고, 그 과정에서 유기체는 행함과 겪음을 경험하고, 그러한 가운데 리듬을 획득하게 된다. 삶 속에서 유기체의 이러한 경험은 이미 미적이고 인식적 특성이 가능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미적 경험이 일어나지 않는 두 종류의 세계가 있다. 단순한 흐름의 세계에서는 변화가 누적되지 않는 것이며, 종결로 향해 나아가지 않는 것이다. 또한, 안정과 휴식의 세계에서도 미적 경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종결되고 끝난 세계는 긴장감과 위기의 특성이 없고, 해결의 어떠한 기회도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이다(AE, pp. 16-17; Zeltner, 1975, p. 16).

젤트너는 “이 지점에서 듀이가 제안하는 ‘하나의 경험(an experience)’, ‘수렴적 완성의 경험(consummatory experience)’, ‘수렴적 완성의 단계(consummatory phase)’, 그리고 ‘미적 경험(esthetic experience)’과 같은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살펴야 한다”(Zeltner, 1975, p. 17)라고 강조한다. 젤트너는 비록 듀이가 제3장 ‘하나의 경험’에서 ‘수렴적 완성의 경험’을 쓰고 있지만, 단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듀이의 미학에서 미적 경험의 올곧은 이해를 위해서는 그러한 구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본적으로 젤트너는 듀이가 ‘하나의 경험’이라는 말을 ‘미적 경험의 일차적 단계’와 동의어로 사용한다고 본다. 그러면서 그는 듀이에게서 미적 경험의 일차적 단계가 곧 미적 경험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미적 경험의 일차적 단계는 예술이나 이와 유사한 심사숙고 하여 개발된 것들과는 별도로 미적 성질을 가진 인간의 지속적인 활동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즉 미적 경험의 일차적 단계는 일상적 경험에 참여하여 일상의 미적 성질(특성)을 소유해야만 미적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젤트너는 ‘수렴적 완성의 경험’은 ‘하나의 경험’과 동의어로 사용되며, 또한 ‘미적 경험의 일차적 단계’와 유사어로 사용된다고 밝힌다. 하지만, 경험의 ‘수렴적 완성의 단계’는 수렴적 완성의 경험으로 특징짓는, 이른바 발전하고 있는 경험의 단계를 나타내는 것으로는 다소 불명확하게

사용된다. 그런 만큼, 미적 경험은 질적 성격이 특정 방식으로 구조화되었을 때 지배적이고도 결정적인 특징은 되지만, 어떤 경험에 부수적인 특징의 경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분명한 것은 듀이에게서 미적 경험은 심사숙고 혹은 의도적으로 다듬어진 경험이다. 하지만, 젤트너는 듀이가 특별히 이러한 구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의 깊게 조사해야만 하고, 그러한 조사는 경험의 풍부함을 구분하고 분석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수학자가 어떤 수학 문제를 풀 때 하나의 경험을 할 수 있지만, 미적 경험을 가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젤트너가 지적하듯이 “미적 경험과 그것의 동의어들이 ‘수렴적 완성의 경험’과 ‘하나의 경험’의 일차적 단계와 세심하게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Zeltner, 1975, p. 17).

사실, 듀이는 그의 미학에서 미적 성질과 관련하여서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 수학자는 하나의 경험을 가진다고 이야기한다. 젤트너는 듀이의 이러한 논의가 하나의 경험이 미적 경험의 단계와 관련해서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그 이유는 미적 경험의 일차적 단계와 의도적으로 다듬어진 단계의 구성요소를 구별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젤트너의 이런 주장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듀이가 1950년 논문에서 언급하는 ‘일차적 단계’라는 말의 사용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 만큼, 젤트너는 듀이의 미학적 관점에서 미적 성질은 미적 경험의 일차적 단계와 의도적으로 다듬어진 단계에 모두 출현한다고 보았다. 즉 미적 성질이 어떤 것에는 출현하고 어떤 것에는 출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강조 혹은 의향에 관계되고, 어떤 종류의 질료 및 일차적 단계 안에서 이미 발견된 요소들의 구성 조직에 관계된 것이라는 것이다. 곧 젤트너에게서 듀이의 미적 경험의 핵심 문제는 정상적인 생활 과정과 함께 전통적으로 순수 예술의 특징이 되어왔던 미적 경험을 재통합시킴에 있고, 미적 경험의 일차적 단계와 의도적으로 개발시킨 단계 속에는 미적 성질이 있다는 것이다. 이 미적 성질은 서로 다른 유형의 경험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경험의 연속성을 다시 강화할 수 있는 미적 경험의 주요 요소이다.

많은 사람이 듀이의 미적 경험과 하나의 경험의 구분에 불평하는 이유는, 바로 듀이가 신중하게 다듬어진 단계와 미적 경험의 일차적 단계의 연관성을 너무도 강조한 나머지 하나의 경험이 미적 경험이 될 수도 있는 방법에 관한 방안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젤트너는 다시금 수학자의 예를 들면서, 만약 다른 탐구를 위한 도구로서가 아니라 문제 그 자체를 위한 문제의 해결을 꾀하는, 즉 그의 경험이 인식적인 것과 반대가 되는 하나의 지배적인 질적 성질을 지닌다면 그러한 경험은 미적 경험이 된다고 강조한다(Zeltner, 1975, p. 18). 사실, 듀이는 어떤 경험이든지 지배적인 미적 성질을 소유하면 미적 경험이라고 간주하였다. 그래서 듀이는 “경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요소가 지각의 문턱 위로 높이 들어 올려지고 그 자체로 나타날 때, 어떤 대상은 독특하고 지배적인

미적 지각의 즐거움을 준다(AE, p. 57; Zeltner, 1975, p. 18)”라고 한다. 그런 만큼, 듀이에게서 모든 일상의 경험은 스스로 완성을 위해 착수될 때 비로소 미적 경험이 되는 것이다. 즉 어떤 일상의 경험이라도 지배적인 질적 유형을 가진다면, 그것은 의도적으로 개발된 경험이기 때문에 곧바로 미적 경험으로 불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듀이는 “성질은 정의할 수 없고 서술할 수 없다”(Dewey, 1925, p. 85)라고 기술한다. 이는 “자연은 불확정성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의 삶은 불안정하고, 신기하며, 불규칙하고, 예측할 수 없고, 위험하고, 혁신적이고, 불확실하고, 통제할 수 없다”(Zeltner, 1975, p. 10)라는 자연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젤트너는 이 지점에서 코인로크(Gouinlock)의 견해를 언급하며 성질의 의미를 구체화한다.

성질이 “형언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은 직접적인 경험이 추론적이거나 인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경험의 어떠한 개념적 설명은 경험 자체와는 달라야 한다. 직접적인 경험의 성질이 이야기되거나, 반영되거나, 어떤 식으로든 구별화될 때 행동은 그 문제의 성질을 변형시킨다(Zeltner, 1975, p. 10).

이처럼, 젤트너는 듀이의 철학에서 “성질은 마음의 특수한 능력이나 범주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기체 전체에 의해 느껴지는 것이다”(Zeltner, 1975, p. 10)라며, 유기체의 센스를 미학의 주요 미적 능력으로 간주한다. 물론, 이 미적 센스는 듀이 미학의 핵심 개념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듀이에게서 미적 경험의 궁극적인 척도는 미적 성질을 포함하는 지배적인 질적 유형에 달려 있다. 이 지배적인 질적 유형 혹은 질적인 궁극성이 바로 듀이가 말하는 하나의 경험의 수준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그래서 듀이의 ‘하나의 경험’의 수준 혹은 특징은 ‘수렴적 완성으로서의 경험’, ‘상황적 통일체로서의 경험’, ‘미적 성질을 소유한 경험’, ‘하나의 종결 경험’, ‘정서적 완결과 통일로서의 경험’, ‘조정력을 지닌 경험’, ‘선의 경험’ 등으로 정리된다.

## IV. 결론

이상과 같이 젤트너가 제안하는 존 듀이 미학의 접근과 미적 경험의 이해를 논의하였지만, 듀이의 미적 경험을 이해하기에 충분하다고 하기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하나의 경험과 연관성 정도를 명확하고 확실히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물론, 그 핑계를 익히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험의 직접성과 성질은 말로 표현되거나 설명될 수 없는 것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그 명료함과 전달성에 있어서 여전히 모호함이

남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듀이의 미적 경험을 간략히 정리하면, 듀이의 미적 경험은 자연의 미적 성질(특성)을 담지하는 유기체가 자연에서 겪는 경험이다. 이 자연은 일상과 직접 관계된다. 일상에서 갖는 수렴적 완성의 경험 혹은 하나의 경험은 미적 경험의 일차적 단계가 되고, 예술의 경험은 의도되고 다듬어진 단계가 된다. 그러므로 듀이 미학의 ‘하나의 경험’은 분명 미적 경험이다. 다만, 듀이가 미적 상황이라는 구조화와 성질을 갖출 때 비로소 미적 경험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아 많은 오해와 혼동을 불러일으켰을 뿐이다. 그런 만큼, 하나의 경험이 미적 경험이 되는 수준은 듀이가 그의 『민주주의와 교육』(*Democracy and Education*, 1916)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무조건적(기계적)이거나 방향성 없는 맹목적이지 않고 방향성과 목적성의 사고를 지닌 지력(知力, intelligence)을 수반하는 경험이다. 즉 하나의 수렴적 완성의, 완결적, 정서적 경험으로서의 하나의 경험은 분명 미적 성장이라는 목적을 이끄는 미적 사고를 수반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경험은 경험의 매체와 상관없이 미적 경험으로 볼릴 수 있는 그런 경험이다.

듀이의 미학에서 생명체인 인간 유기체는 ‘자연의(of)’ 것이 되고, ‘자연의 안(in)에서’, ‘자연에 의해(by)’로 그들의 생명을 존속하고 삶을 영위한다. 그런 만큼, 인간의 지식과 관점은 자연이 내포하고 있는 안정과 불안정, 확실함과 불확실함, 구체적인 것과 신기한 것, 증명 가능한 것과 오묘한 것, 예측 가능한 것과 예측 불가능한 것, 안전함과 위험함,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 등을 특성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본 논의는 그 확실성의 정도에서 여전히 불안함을 내재할 수밖에 없다. 설령, 듀이의 미적 경험을 잘 논의하고 설명을 완벽하게 하였다고 해서 본 연구자의 견해가 독자에게 그대로 전달될 리가 없다. 그래서 어쩌면 듀이의 미학과 미적 경험의 올곧은 이해는 어떤 진술과 설명을 뛰어넘는 경험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의는 듀이의 미학과 미적 경험을 궁금해하거나 연구하는 누군가에게는 분명 학문적 즐거움의 풍요로움과 사고의 확장을 증가할 것으로 가늠된다.

## References

- Bernstein, R. J. (1966). *John Dewey*. Atascadero, CA.: Ridgeview Company.
- Dewey, J. (1902). *The child and the curriculum*.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22). *Human nature and conduct: An introduction to social psychology*. New York: The Modern Library.
- \_\_\_\_\_ (1939). *Freedom and culture*. New York: G. P. Putman's Sons.



- \_\_\_\_\_ (1949). *Knowing and the known*. Boston, MA: Beacon Press.
- \_\_\_\_\_ (1950). Aesthetic experience as a primary phase and as an artistic development.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9(1), 56-58.
- \_\_\_\_\_ (1958). *Art as experience (First published 1934)*. New York: G. P. Putman's Sons.
- \_\_\_\_\_ (1976). *John Dewey: The middle works, 1899~1924: Vol. 9: 1916(Democracy and Education)*. In Boydston, J. A. (Eds.). Carbondale, IL: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_\_\_\_\_ (1981). *John Dewey: The later works, 1925-1953: Vol. 1: 1925(Experience and Nature)*. In Boydston, J. A. (Eds.), Introduce by Hook, S.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 Elliott, D. J. (1995). *Music matters: A new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New York University Press.
- Elliott, D. J., & Silverman, M. (2015). *Music matters; A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Jung, S. B. (1996). *The introduction to John Dewey's aesthetics*. Seoul: Yeajeonsa.
- \_\_\_\_\_ (2001). The inquiry into the equality of art and ordinary life in John Dewey's philosophy.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Aesthetics*, 31, 117-169.
- Jung, S. B. (2004). On the semantic implications of John Dewey's pragmatic aesthetic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Aesthetics*, 37, 113-152.
- Kim, G. S. (2004). A Study on the represented Meaning in John Dewey's 『Art as Experience』.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6, 37-75.
- \_\_\_\_\_ (2006). A study on the meaning of music in the view of John Dewey's aesthetic.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and Ethnicity*, 32, 147-170.
- \_\_\_\_\_ (2008). The implications of John Dewey's aesthetic experience for music educ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ju.
- \_\_\_\_\_ (2009). A purview of John Dewey's art philosophy represented in B. Reimer's A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and Ethnicity*, 37, 327-352.
- \_\_\_\_\_ (2016). John Dewey's naturality and pragmatism music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5(2), 1-20.
- \_\_\_\_\_ (2019). Is John Dewey's philosophy worthwhile in music education. *2019 Korean Society for Music Education's Summer Conference's Data Collection*, 8-9.
- \_\_\_\_\_ (2023). The value and role of music education in the post-corona era from

J. Dewey's perspective: Focused on democracy and education and art as experienc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39(3), 67-84.

Kim, S. J. (2004). A comparison of the artistic perspectives of J. Dewey and S. K. Langer.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5(3), 21-52.

Reimer, B. (1970). *A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A Simon & Schuster Company.

Shusterman, R. (2002). *Pragmatist aesthetics: Living beauty, rethinking art*.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Zeltner, P. M. (1975). *John Dewey's aesthetic philosophy*. B. V. Amsterdam.